



보도	2026.4.1.(수) 10:00	배포	2026.4.1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담당부서	IT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유희준	(02-3145-7420)
		담당자	부국장	김송범	(02-3145-7415)
	은행검사2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이지원	(02-3145-7200)
		담당자	팀 장	김정훈	(02-3145-7205)
	금융투자검사1국 증권기획조정팀	책임자	국 장	김형순	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이원흠	(02-3145-7012)
금융투자검사3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오세천	(02-3145-7830)	
	담당자	팀 장	조영석	(02-3145-7832)	

## 전산사고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터넷은행 및 계열 증권사 CIO 대상 점검회의 실시

### I 간담회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및 계열 증권사(이하 '인터넷은행 등')의 IT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
  - '26.4.1.(수) 이종오 디지털·IT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인터넷은행 등 5개사의 최고정보책임자(CIO), 감사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
  - 시스템 변경절차 등 IT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계획, 소비자 보호 대책 및 IT감사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, 디지털금융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였음

#### 인터넷은행 등 CIO 대상 점검회의 개요

▣ 일시 / 장소 : '26. 4. 1.(수) 10:00~11:00, 금융감독원 본원 회의실

#### ▣ 주요 참석자

- (금감원) 디지털·IT 부원장보(주재), IT검사국, 은행검사2국, 금융투자검사1·3국
- (업 계) 인터넷전문은행 및 계열 증권사(5개사\*) CIO, 감사담당자 등

\* (은행) 케이뱅크,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, (증권) 카카오페이증권, 토스증권

## II 간담회 논의 내용

### 1. IT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유의사항

□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인터넷은행 등이 고객수 및 거래량 증가에 비례한 IT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음

① 프로그램 변경시(신규 기능 도입 및 업데이트 등) 사전 영향도 분석, 테스트, 제3자 검증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\*를 준수하는지 면밀하게 점검

\* 프로그램 변경과 연계된 타 시스템 영향 분석, 변경내용에 대한 제3자 검증 및 IT·현업부서 테스트, 고객이 적은 시간대 프로그램 배포, 통제절차 교육 강화 등

② 거래량 급증에 대비하여 전자금융 인프라의 가용성을 확보\*하는 등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 계획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재점검

\* 핵심서비스별 거래 처리 지연 상황, 전산자원(CPU, 메모리, 스토리지 등) 임계치 수준을 점검하고 긴급 전산 자원 증설을 통해 처리 성능 확보

③ 전산장애 등 사고발생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함께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체수단 및 피해보상 등을 적극 안내하여 불편을 최소화

④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불안에 편승한 디도스,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

### 2. 주요 당부사항

□ 이종오 디지털·IT 담당 부원장보는 인터넷은행 등이 그간 금융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, 시스템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한 혁신과 성장에 주력해왔으나

○ 앞으로는 성장 규모에 걸맞는 수준의 IT안정성과 사고예방 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

○ 특히, 최근 전산사고가 주로 기본통제 미흡으로 발생하고 있어 IT부문 감사 등 자율적인 통제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
### 3. 참석자 발언 요지

- 인터넷은행 등 참석자들은 디지털금융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철저한 IT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,
  -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IT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당부 사항과 자체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전자금융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겠다는 의견을 표명

### Ⅲ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IT사고 재발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독·검사 체계를 전환하는 한편,
  - 기본적인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해 대형 전산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